
5 분 자유 발언

-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환경 정비 방안 제언 -



고성군의회
(우정욱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부의장 우정욱입니다.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들녘에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여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 노고가

알찬 결실로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로당 환경 정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의 전체 인구 약 4만 7,000여 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8%에 달합니다.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사회적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자
각종 복지서비스와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세월의 흔적이 남아
관리가 필요한 물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관리와 수리, 교체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물품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도 현황조사가 되고 있지만,
물품의 내구연한과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도별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폭염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냉난방 겸용기기 등 주요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해진 만큼,
제때 관리와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로당 비품 지원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2025년 경로당 비품 구입 지원 예산은
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현재 고성군에는 332개의 경로당이 있어
읍·면별로 배분되는 예산이
주민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특성상
물품의 사용 빈도와 소모가 일반 가정보다 많아
노후화도 빠릅니다.

따라서 비품 지원 예산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노후 물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로당 옥상이나,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유지관리 등에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기료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일부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가
현재 노후화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방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수로 이용자의 건강 문제와 불편을 야기하고
특히 안전 문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태양광·태양열 시설이 설치된 경로당, 회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제 조사를 통하여
경로당의 전반적인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 또는 철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옥상의 안전 및 누수 방지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다양한 불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실생활 속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성군의 어르신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경로당의 노후 물품과 환경 정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